무료 요리수업, 할렘가에 '꿈의 씨앗' 심다

metro, 다이켄 넬슨 스님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 소개

"어떤 이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는 하루 동안 배부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배불릴 수 있다."

옛 속담에 담긴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요리 수업을 제공하는 미국 스님이 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Iowa)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스님인 다이켄 넬슨(Daiken Nelson) 씨다.

미국 생활정보지 'metro'는 10월 25일(현지시간) 넬슨 스님이 실시하는 6주 과정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는 뉴욕 할렘서 진행되는 요리수업으로, 요식업계서 일하길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업자, 노숙자, 저소득자, 재소자, 불법 이민자, 청소년 등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기 전 음식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넬슨 스님은 "내 관심사였던 음식과 서비스, 사회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직업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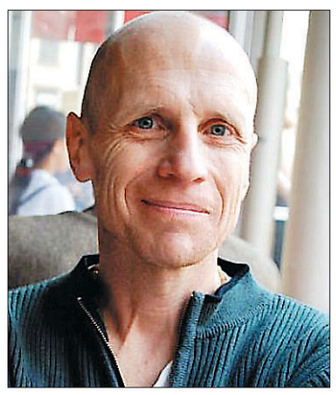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는 단순한 요리수업이 아닌 요리법과 이론을 철저히 연구, 요식업계 현장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전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강생들은 채소 다지기, 고기 삶기 등 기본 조리법을 포함해 음식 위생 및 안전, 주방 운영법, 팀별 업무 등 숙지하게 된다.

아울러 넬슨 스님은 요리수업에 명상 및 마음챙김수행 등 불교적 수행법도 활용한다. 넬슨 스님은 "수업의 시작은 조용히 명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명상은 평소에도 좋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요식업계 근무자들에게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요리수업을 수료한 학생은 시(市)가 주관하는 음식위생담당자 시험에 응시, 직업소개소의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만다라 키친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 '만다라 카페(Mandala cafe)'가 후원한다. 만다라 카페는 소규모 뷔페 사업을 실시하는데, 수강생들은 이곳서 파트타임제로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1기 수강생 레옹 밥티스트 씨는 "요리는 언제나 내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난 아주 어릴 적부터 셰프가 되겠단 꿈을 꿨다"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내 실력이 일취월장해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이오와(Iowa)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스님인 다이켄 넬슨〈사진〉은 최근 할렘가서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요리수업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사진출처=Metro

아이오와 출신 사회운동가로
과거 음식점서 일한 경력 살려
소외 계층 위한 무료 요리수업
마음챙김 등 명상법도 접목해
수료 후 취업 지원까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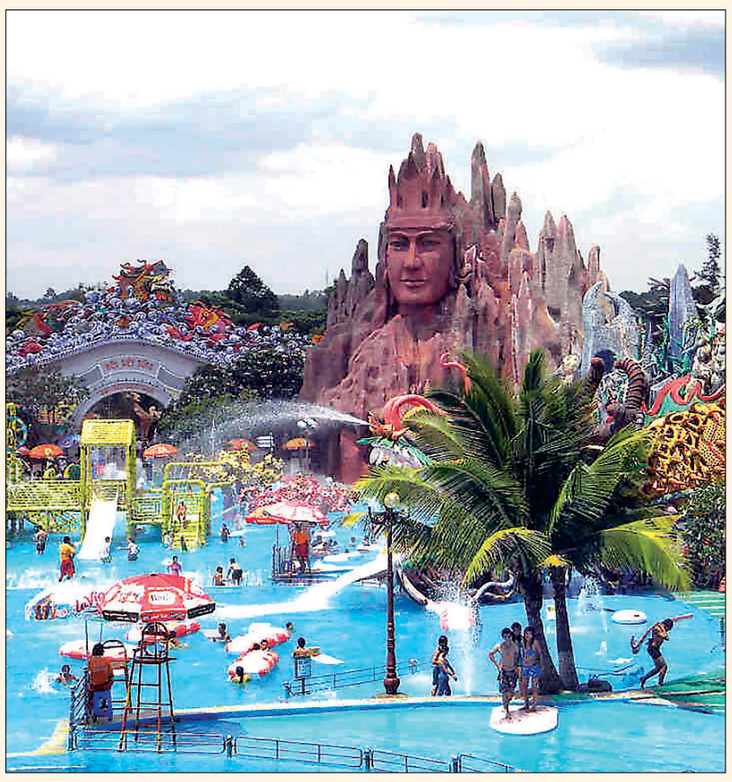
그러면서 레옹 씨는 "요식업계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만다라 요리수업을 적극 추천한다. 이곳서 배운 기술들은 모두 내게 큰 도움이 됐으며, 시간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넬슨 스님은 단순한 요리수업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넬슨 스님은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지역 기반의 '소비자 가격제' 음식점을 만들고, 이곳에 수강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만다라 카페는 지난 5월부터 할렘 지역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무료급식소'지만 이용객들은 1만 7000원~2만4000원 내서 가능한 만큼 지불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서 노동을 제공하고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지역 무슬림 공동체 '사트야 사이 바바'도 매주 식사를 공동으로 준비하며 종교를 초월한 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대교 신도들과 모르몬교 선교사들도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처님 품서 시원한 물놀이 삼매경" 세계 최초 불교 테마파크 '쑤오이띠엔 공원' 전경. 베트남어로 '요정의 시냇물'이란 뜻으로 수도 호치민시티 남쪽에 위치한다. 1995년 9월 첫 개관한 공원은 '전통문화의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 아래, 용, 불상 등 불교적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했다. 16만평 150개 시설 규모로, 매년 평균 450만 명이 방문한다.
"언제나 혁신적이게-언제나 발전하라"는 공원 좌우명에 걸맞게 현재 31만 7,000평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수영장, 놀이기구, 돌고래 쇼, 전통 캐릭터 퍼레이드, 기념일 맞이 법회 등 관람 가능하다. 사진출처=쑤오이띠엔 공원 공식 홈페이지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호날두 불상사진 게재… 네티즌 '격분'

오른발 불두에 올리고 사진 찍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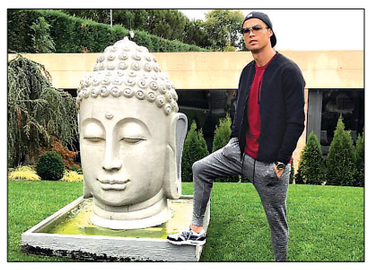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가 불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호날두는 10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좋은 아침(Bom dia)" 라는 인사말과 함께 불두(佛頭)의 받침 위에 오른발을 올리고 양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호날두가 일부러 불교를 모독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에게는 물론 사진을 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에 충분한 포즈이다.

현재 페이스북의 해당 사진에는 6만여 개의 댓글이 있다. 대부분 댓글은 호날두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다는 잘못을 꼬집는 내용들이다.

호날두의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당신은 뇌가 없습니까? 매우 무례하고 안하무인에 제멋대로이군요. 부와 명예와 명성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 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위에 발을 올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깨달으신 분이지 축구공이 아니다. 당장 게시물을 지워라", "문화적 무지함으로 당신은 순식간에 수천명의 팬을 잃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불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스타그램

한편 현재 호날두의 SNS계정은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의 딸 멜리사 멘데스가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진은 호날두가 SNS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멜리사의 실수일 수도 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10월 26일) 사진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지만 해당 사진은 계속 호날두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출돼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日불교 대표 저널리즘 〈월간주지〉 창간 42년만 '날선 취재력'으로 재조명

위드뉴스, 편집장 야자와 쇼도 스님 인터뷰



◀〈월간주지〉 표지.



▲〈월간주지〉 편집장 야자와 쇼도 스님.

일본에서 "〈주간문춘(週刊文春)〉을 뛰어넘는 편집구성", "날선 취재력" 등의 높은 평가로 주목받는 불교계 잡지가 있다. 인터넷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님들을 위한 전문지' 〈월간주지(月刊住職)〉가 그 주인공이다.

일본 인터넷 미디어 '위드뉴스'는 10월 22일 〈월간 주지〉 편집장이자 현역 주지 스님인 야자와 쇼도(矢澤澄道 · 68) 씨를 전격 인터뷰 해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일본에서 〈주간문춘〉은 TV나 신문에서조차 다루지 못하는 일본 왕실을 비판하는 등 민감한 사안을 과감히 다루는 저명한 잡지이다. 이 〈주간문춘〉에 비교될 정도이니 〈월간주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사로 다루는 내용은 사찰과 신자들과의 마찰 문제부터 최근 인기를 끈 '포켓몬 GO' 게임을 불교계의 시각으로 다루는 등 시사문제까지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어느 절의 주지가 파면 당한 것은 인권문제인가?' 라든가 '사찰이 업자를 상대로 고소해 파문' 등과 같은 제목의 기사도 과감하게 다루는 등 일본 불교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면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자칫 일반인들이 읽으면 불교를 오해할 소지도 꽤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자와 스님은 "일반사회에 관한 내용이 아닌 스님들이 독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월간주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호 약 200페이지 분량의 〈월간주지〉는 모두 4명의 베테랑 기자가 취재 일선서 활동한다. 작은 사찰의 화젯거리부터 사찰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문제의 대처방안을 정리한 기사는 물론, 취재가 어려워 보이는 소재들도 가득하단 평가가 이어진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야자와 스님은 "특별한 취재망은 없다. 하지만 막상 취재 중 트러블이 발생하면 절에서 취재를 거부한다. 그래도 단단히 마음먹고 끈질기게 달려든다"며 "현장에 가서 사찰 근처의 쌀집이나 가게에서 정보를 얻거나 신자들을 찾아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찾아낸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취재방법"이라며 담담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사찰 안팎의 사건과 소송 문제, 과세 문제와 같은 법률상담은 물론 신흥종교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는 등 〈월간주지〉가 취재력과 기획력에 있어서 인정받는 잡지임에는 틀림없다.

편집장이면서 동시에 잡지의 창간인인 야자와 스님에게 잡지 창간의 계기를 물었다.

"젊은 시절 주지 스님의 능력에 따라 각 사찰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 좋은 주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이런 내용을 스님들에게 알리면 사찰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창간하게 됐습니다."

잡지는 1974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다룬 기사의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야자와 스님은 〈월간주지〉의 기사 내용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거나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편집부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 보내주신 일반인 독자들 의견이 기획에 반영되기도 한다"며 "일반인들에게 스님의 활동을 전하고, 지적받은 부분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계기로 받아들여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한국에서는 주지의 한자 표기가 住持이나 일본에서는 주지직의(住持職)의 준말인 주직(住職)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월간주직(月刊住職)'을 '월간주지'로 번역했습니다.





